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역동경제 평창

2017년 7월 22일(토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7. 21.(금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7. 7. 20.(목)	담당부서	통상정책총괄과
담당과장	조영제 서기관(044-203-5621)	담 당 자	신현우 사무관(044-203-5623)

미국 파리기후협약 탈퇴선언에 따른 통상정책 방향 논의

[일본 환경경제학 교수 초청, 제3차 선진통상포럼 개최]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는 '17.7.21.(금) '17년 **제3차 선진통상포럼***을 개최하고,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트럼프 대통령의 **파리기후협약 탈퇴선언****이 **경제에 미칠 영향과 통상정책 방향**에 대해서 논의했다.

* 정부·학계·경제계 통상전문가들이 관련 현안에 대해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

** 지난 6.1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'파리기후협약' 협약 탈퇴를 선언

< 2017년 제3차 선진통상포럼 개요 >

- **일시/장소** : '17. 7. 21일(금) 12:00~14:00 /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
- **참 석 자** : (산업부) 우태희 2차관, 통상정책국장, 통상정책심의관 등
  (포럼위원)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장, 곽노성 동국대 교수,
 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, 표인수 태평양 변호사 등 통상전문가
- **논의주제** : "트럼프 대통령의 파리기후협약 탈퇴선언과 우리나라의 대응과제"
  (일본 메이죠대 이수철 교수)

□ 포럼 위원장을 맡고 있는 **안세영 원장**은 모두 발언을 통해 "미국의 **파리기후협약 탈퇴**가 중장기적으로 **한미경제협력에 중요한 영향**을 끼칠 것이다."라고 전망했고,

○ "**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움직임**이 향후 **통상정책 방향에 미칠 영향**에 대한 **다양한 생각을 논의**할 필요가 있어 이번 선진통상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."고 취지를 설명했다.

□ 우선, 발제자로 나선 일본 메이죠(Meijo) 대학의 **이수철 교수**는 **기후변화방지에 대한 국제적 노력과 일본의 기후변화 대응정책**에 대해 소개했다.

○ 이수철 교수는 "**기후변화 방지노력**은 저탄소 기술혁신을 통한 **새로운 산업과 고용창출**로 지속가능한 **선진 경제실현이라는 과실**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,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탈퇴 여부가 **기후변화방지를 위한 세계적인 조류**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."라고 분석하고

○ "**일본**은 국제사회의 **기후변화 대책에 공헌**하는 한편 **통상전략 차원**에서 아시아 및 아프리카 17개국과 정부간 저탄소 협력에 관한 **공식 채널을 확보**하여 관련 **기술 및 기자재 수출을 도모**하고 기업의 시장진출을 돕고 있는 소위 **양국간 크레디트제도***(JCM; Joint Credit Mechanism)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"고 소개했다.

* 일본과 피원조국 간에 합의된 배출권 거래제도로 저탄소 기술, 제품, 시스템 등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일본은 배출권을 확보

□ 이어 참석자들은 미국의 **기후변화협약 탈퇴가 현실화***되었을 경우 **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의견 제시와 토론**을 이어갔다.

* 절차상 탈퇴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협약발효 4년 후인 2020년 11월

○ **명지대학교 김태황 교수**는 "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이 증대되고 자동차의 환경 규제가 완화된다면 우리나라의 **천연가스 수입과 자동차 수출**에 **긍정적인 효과가 유발**될 수 있을 것"이라면서도

○ "탈퇴가 현실화된다면 미국이 간접적으로 자국의 **환경 규제 완화 기준**을 **양자 간 통상 협상 카드로 활용**할 가능성 등 **부정적 측면**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."라고 예상했다.

□ 한편, **통상 정책방향의 설정**에 있어 **기후변화 관련 다양한 국제적 논의에 보다 주목**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.

○ **서강대 김도훈 교수**는 “수소불화탄소(HFC) 금지, 석탄화력 발전소 수출금융지원 규제, 선박온실가스 규제 등 **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**은 우리 산업에 **부담인 동시에 기회다.**”라며

○ “조선 등 **후발국의 도전에 직면한 산업**의 경우도 한발 앞서 **저탄소 기술을 조기에 개발하여 적용**함으로써 **경쟁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**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.”라고 말했다.

○ **코트라(KOTRA) 윤원석 본부장**은 “**온실가스 감축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**해 향후 기후변화 대응해 선도국가로부터의 **통상압력*** **가능성을 미연에 차단**하고 개도국과의 **통상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**할 수 있을 것이다.”라고 전망했다.

* 예)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기후협약 탈퇴선언을 계기로 EU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나라의 상품 수입에 대해서 추가로 관세를 지불하게 하는 소위 국경세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

□ 마무리하면서 **우태희 차관**은 우리나라도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미 약속한 **온실가스배출 감축의무를 성실히 이행**하고 이러한 입장을 **국제 통상 협상에서도 적극 활용**해 나가야 한다는 **토론 결과에 공감**을 표시했다.

○ 또한 “통상 당국도 국제 **기후변화 논의 동향에 관심**을 가지고 미국 등 관련국 **정책 변화를 철저하게 모니터링** 할 계획이다.”라고 밝히며,

○ 포럼 참석자에게 “**국제적인 기후변화 정책 동향**을 **통상 환경의 중요한 변수**로 인식하고 함께 대처해 갈 것이다.”라고 당부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신현우 사무관(☎ 044-203-562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